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9~6/2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늘바라는대로이루고있다:선지식의크신사랑(개정판)	김원수 지음	청우당	6	네가지마음챙기는공부*대념처경과그주석서(초기불전001)	각묵옮김	초기불전연구원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3	이와같이살았으면(무비스님의보현행원품해설)	여천 무비 풀어씀	염화실	8	불교문화와상식(만화불교이야기5)	김정빈/최병용	솔바람
4	성자와범부가함께읽는금강경(개정판)	김원수 지음	청우당	9	윤회(대원불교학술총서15)불교의마음업우주에대한길잡이	로저 잭슨	운주사
5	티베트사자의서(그림으로풀어낸삶과죽음의안내서)	파드마삼바바/장홍스	김영사	10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책세상

선승은 왜 '정토의 종지기' 자처했나



머리 한번 만져 보게나, 극락 간다네
함현 스님 지음
담앤북스/ 1만8000원



평생 참선 매진했던 함현 스님
어느 날, '정토수행 정진' 공표
"아미타불 본원 믿고 염불하면
우리는 모두 극락왕생 이르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나는 공성(空性)의 오두막인 극락정토를 장엄하는 살림꾼, 아미타부처님의 본원(本願)을 깊이 믿고 널리 권하는 정토의 종지기가 될 것입니다."

조계종 종립선원 문경 봉암사 주지를 지낸 함현 스님은 출가 후 참선 수행만을 정진했던 한국불교의 대표적 선승이다. 그런 스님이 갑자기 '정토행자'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뭇 중생들을 정토신앙으로 이끌 염불수행 지침서를 펴냈다.

정토신앙은 아미타불의 본원(本願)을 믿고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면 내세에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선(禪) 수행을 중시하는 한국불교에서 정토신앙은 오랜 세월 타력신앙 혹은 하근기 수행법으로 치부되어 왔다.

하지만 중국 영명 연수 선사는 "참선만 하고 정토수행을 하지 않으면 열에 아홉이 길을 잃는다"고 경계했고, 운서주굉 스님은 "한결같이 산란하지 않은 마음으로 염불만 하면 그가 지은 공덕의 크고 작음에 따라 결정코 구품연화대에 왕생하리라"고 설했다. 신라 원효 대사 역시 "십념(十念)의 염불로도 극락에 왕생한다"는 가르침을 전하는 등 역대 동아시아의 수많은 선승들은 염불수행을 병행해 왔다.

2022년 펴낸 책의 증보판인 〈머리 한번 만져 보게나, 극락 간다네〉에서 함현 스님은 참선이 아닌 염불수행에 매진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스님은 "정토법문은 그 실천이 쉽고 일상적이기에 이 시대의 삶들에게 크나큰 위안과 은혜로운 빛을 주는 최적의 법문"이라며 "물러남 없는 신심으로 앉으나 서나 오직 아미타불만을 염(念)하면 생각이 아미타불이 되어, 붉은 지혜의 해가 솟아올라 보배나무와 보배 연못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연한 각오를 이 같이 밝힌다.

"이보게 함현!/ 이제 머리나 한번 만져 보세나./ 머리를 돌려 스스로를 보아야 하네./ 눈빛을 되돌려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네./ 그래야 출가의 첫 뜻을 저버리지 않고/ 진정으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지 않겠는가."

– 1장 함현자계(涵玄自戒)
'머리 한번 만져 보게나' 중에서

스님의 책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1장 '함현자계(涵玄自戒)'에는 함현 스님이 부처님께 올린 참회·발원문과 아미타불 게송이 담겨 있다. 출가의 첫 뜻을 버리지 말자는 다짐과 그간의 수행에 대한 냉철한 성찰, 염불하고 염불해 긴 윤회의 굴택을 벗어나고자 하는 비상한 각오를 읽을 수 있다.

2장 '연문수경(蓮門手鏡)'과 3장 '권수정토문(勸修淨土文)'에서는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의 '정토삼부경'과 〈여산연종보감〉 〈삼시계념의범〉 〈십주비바사론〉 등 정토문헌, 운서주굉·영명연수·중봉명본·원효 등 선지식들의 어록에서 찾아낸 정토문 성언(聖言)을 소개한다. 더불어 염불수행 방법, 염불의 공덕, 염불행자의 마음가짐, 정토수행의 바른 길 등을 제시한다. 부록으로는 정토신앙과 실천의 연원을 밝힌 논문 두 편을 실어 염불과 정토수행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지난 40여 년간 올곧은 선승의 본분을 지켰던 함현 스님이 이젠 정토행자의 길 위에 섰다.

그렇기에 스님은 시작도 끝도 없이 언제나 지금으로 흐르는 극락세계 아미타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실감한다. 이는 물러남 없는 신심으로 오직 아미타불만을 염하기에 가능하다.

"생각 생각이 아미타불이 되어, 아미타불 밖에 이 마음이 없고, 이 마음 밖에 아미타불이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백만 리 번뇌의 구름이 홀연히 사라지면, 붉은 지혜의 해가 솟아올라 보배나무와 보배 연못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저자 **함현 스님**은?

속리산 법주사에서 월암당 이두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 송광사, 백양사, 극락선원, 대승사, 동화사,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종립특별선원 문경 봉암사 주지, 지리산 선화사 주지를 역임했다. 북한산 도솔원에서 수행정진을 마치고 현재 충청북도 청주 관음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시대·지역별 대장경 변천 살피다



새로 쓰는 대장경의 성립과 변천
교토불교각종학교연합회 지음
박용진 · 최종남 번역/ 운주사/ 2만5000원

〈새로 쓰는 대장경의 성립과 변천〉의 출간 역사는 좀 길다. 교토불교각종학교연합회(京都佛教各宗學校連合會)는 창립 5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류코쿠대학(龍谷大學)이 중심이 되어 〈대장경(大藏經)-성립과 변천(成立と變遷)〉(1964)을 출간했다. 이는 당시 불교학계 전체에서 처음 발표된 대장경 관련 연구 전문 서적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연합회에서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신편(新編) 대장경-성립과 변천〉의 출판을 기획하고, 크게 진전한 최신의 대장경 연구를 기반으로 해 2020년 12월에 간행했다.

이렇게 대장경에 대한 총체적 연구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이 이번에 불교문헌 연구의 전문가인 최종남 교수와 박용진 교수에 의해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다. 이로써 인도에서의 불교경전 성립에서부터 각지로의 전래, 그리고 그 각 지역에서의 불교경전 수용과 변용의 전체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이 책은 인도에서의 불교경전 성립부터 각 나라로의 전래, 각 지역에서의 경전 수용과 번역 과정에 대해 고찰해 불교학 연구에 있어 탄탄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몸·마음 작용 유식으로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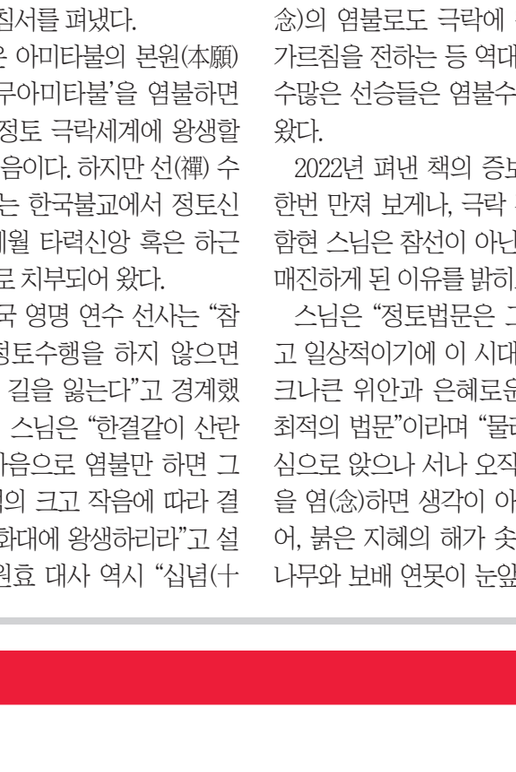
유식학으로 보는 몸과 마음
안환기 지음
운주사/ 2만 3000원

인간의 삶 속에서 건강한 '정서(emotion)'와 '인지(cognition)' 작용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은 감정 곧 정서를 건강하게 표출하고, 제대로 된 사고 작용(인지작용)을 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 또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연구가 몸과 마음의 관계를 중심으로 심리학, 생리학, 인지과학, 뇌과학 등에서 꾸준히 진행돼 왔다.

〈유식학으로 보는 몸과 마음〉은 '정서'와 '인지' 작용을 대승불교 유식학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다. 유식학은 고대 인도의 수행자들이 마음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체계적으로 만든 것으로서 중관학과 더불어 대승불교의 큰 흐름을 형성했다.

이 책은 유식에서 마음의 양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100가지로 분석하고 일목요연하게 체계화한 5위100법을 현대어로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대 학문인 심리학 및 뇌과학의 개념과 비교·분석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정서'와 '인지' 작용에 대한 유식학의 사상들을 세밀하게 분석해 현대어로 풀어 해석함과 더불어 이를 현대인과 친숙한 서양 심리학과 비교하여 재조명한다. 신중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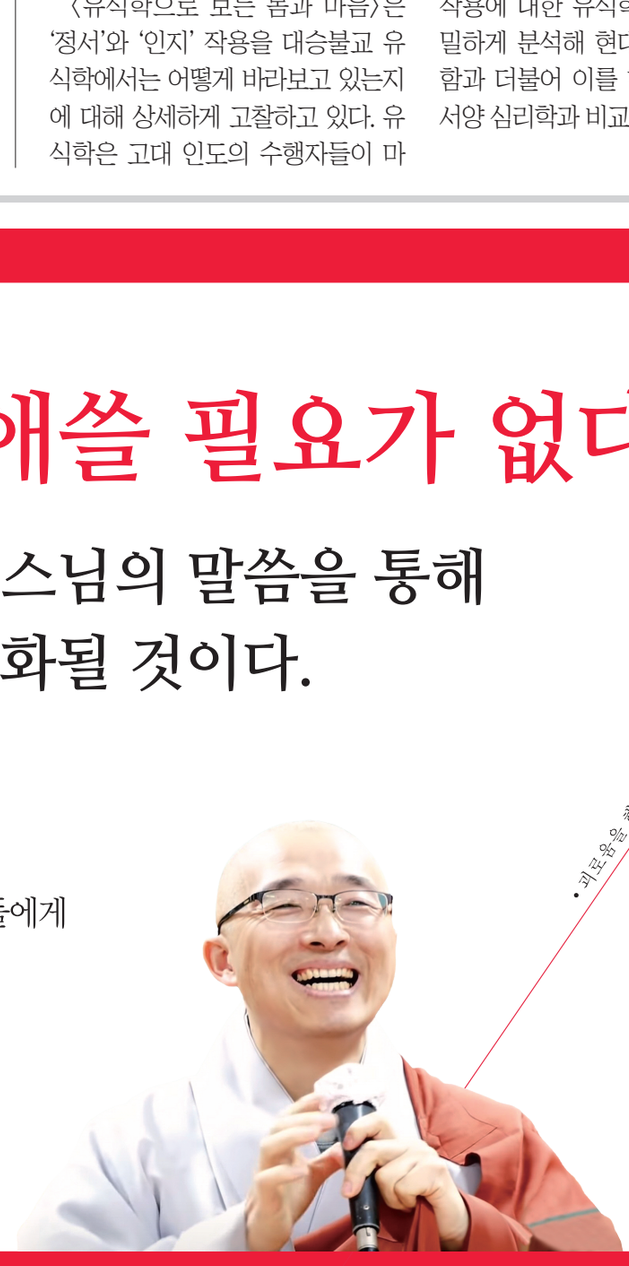


보현행원품과 마음공부 | 글 법상 | 432쪽 | 23,000원

억지로 실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행복의 여정으로 안내하는 법상 스님의 말씀을 통해
저절로 공명하고, 감동하면서 체화될 것이다.

『화엄경』「보현행원품」은 생활 속에서
마음공부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경전입니다.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쉽고도 직접적인 가르침을 전합니다.
매우 깊은 불교의 가르침을 이토록 쉬운 방식으로
실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법상 스님의 머리말–



•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 •
• 불변증을 통한 마음공부 •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